

#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만의 중등교육 학제와 일본어 교육에 관한 연구\*

송 숙 정\*\*

(e-mail : suejoan@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서론                 | 2.2. 대만의 중등학제             |
| 1.1. 연구목적             | 3. 중등교육용 일본어 교육에 관한 비교 고찰 |
| 1.2. 선행연구             | 3.1. 조선의 중등교육용 일본어 교육     |
| 2. 조선과 대만의 중등학제 비교 고찰 | 3.2. 대만의 중등교육용 일본어 교육     |
| 2.1. 조선의 중등학제         | 4. 결론                     |

키워드 : 中等教育(Secondary education), 補習科(Supplementary course), 高等科(Higher education), 高等普通学校(Higher secondary school), 女子高等普通学校(Girls' secondary school)

## 1. 서론

### 1.1. 연구목적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만에서는 초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중등교육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저급한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에 그들의 교육목적이 있었기에 중등교육의 성장에 힘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중등 및 고등교육을 억제하여 초등교육을 종결교육으로 위치시키려는 그들의 식민 교육정책에 의해 중등교육이 철저하게 차별되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932)

\*\*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식민지언어교육

본고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중등교육의 교육목적과 식민 교육 억제정책의 본질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 있는 학제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만에서 행해진 중등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여러 교과목 중 일본이 동화교육의 필수요소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본어 교육을 통한 민족적 차별을 어떠한 형태로 재생산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시대에 일제강점기를 겪은 조선과 대만의 중등교육 학제와 일본어 교육 실태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현행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제과정이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착목하여 이러한 학제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과 성격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조선과 대만의 중등학제와 일본어 교육에 대한 정책상의 상이는 일본어 보급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일본이 실현하고자 하였던 식민 교육 억제정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1.2. 선행연구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만에서의 일본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다수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학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중혁(2008)은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을 비교하며 일본의 조선에서의 중등교육의 방침을 ‘실용’과 ‘간이’로 설명하며 중등교육의 설립은 될 수 있는 한 억제하고 각종 실업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음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강명숙(2010)은 일제강점기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한말의 학제부터 제1차 조선교육령 당시의 학제를 중심으로 학제 정착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구한말 중등과정인 고등학교는 종래의 중학교를 개칭한 것으로 심상과, 고등과의 구별을 없애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예과보습과를 둘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히로타니 타키오와 히로카와 토시코(弘谷多喜夫;廣川淑子, 1973)에 의한 일제강점기 대만·조선에서의 식민지 교육정책 비교사적 연구를 통해 당시 조선과 대만에서 행해진 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 통계년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후지이 야스코(藤井康子, 2011)는 1930년대까지 초등교육의 확충에 비해 중등교육 기관의 신설이나 증설이 억제된 이유에 대해 공학제(共学制)를 실시해서라도 대만인 진학자를 될 수 있는 한 억제하고 싶은 관계당국의 본심이 감추어져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각각의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중등교육 학제와 일본어 교육의 두 가지 주제를 하나의 관점 상에 놓고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을 두고자 한다. 하나의 관점 상에 두고 고찰하는 이유는 일본이 행한 식민교육의 차별성이 조선과 대만에서의 중등교육 학제를 통해 상이하게 드러난다면 그와 연계하여 실시된 일본어 교육에서도 두 나라 간의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조선과 대만의 일본어 교육에 대한 정책상의 상이는 일본어 보급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해 일본이 행한 동화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2. 조선과 대만의 중등학제 비교 고찰

### 2.1. 조선의 중등학제

일제강점기 조선의 학제는 보통교육, 실업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뉘어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통교육은 고등교육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고등 이하의 교육, 즉 오늘날의 초등·중등교육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초등교육 이후의 상급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등을 중심으로 교육령에 따른 학제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당시에는 이와 같은 교육기관에 진학하지 못한 자를 위한 교육과정이었다던 보습과와 고등과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각급 학교의 명칭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일제강점기 각급 학교의 명칭변화1)

시기 학교급	개화기	일제강점기			
	학교령기 (1906-1911)	1차 교육령기 (1911-1922)	2차 교육령기 (1922-1938)	3차 교육령기 (1938-1943)	4차 교육령기 (1943-1945)
초등교육	보통학교	보통학교	보통학교	소학교 국민학교2)	국민학교
중등교육	고등학교 고등여학교 외국어학교 실업학교 농림학교 사범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사범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 사범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 사범학교 (예과)
고등교육	의학고 법관양성소 성균관	전문학교	전문학교 대학	전문학교 대학	사범학교 (본과) 전문학교 대학

위의 백순근(2003)의 표는 현재의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중등교육 기관에는 고등보통학교(중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고등여학교) 외에 실업학교 및 사범학교 등도 포함되지만 본고에서는 관공립 고등보통학교(중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고등여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당시에는 도(道)나 부(府)의 비용이 아닌 개인의 비용으로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3)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관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1.1. 제1차 조선교육령기(1911~1922)

이 시기에는 보통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4년제 고등보통학교나 3년제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남학생을 위한 4년제 고등보통학교는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는 1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졸업한 자를 위해 고등보통학교에는 1년 과정의 사범과를 두거나 1년 이내의 교원속성과를 두었다. 여자

1) 백순근(2003) 『일제강점기의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p.25의 표 참조

2) 1941년부터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명하였음

3) 조선에는 1908년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립학교만 2,250개에 달하였고 학생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사립학교로 1938년 3월 이전 대만에는 사립 중등학교(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는 단 1교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하면 인구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같은 시기 대만과 비교하면 엄청난 근대교육의 성장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대만에서는 대학이나 전문학교, 또는 초등학교(소학교, 공학교)로서 인가받은 사립학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사립학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고등보통학교에도 1년 과정의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였다. 하지만 보통학교 과정에 고등보통학교 과정까지를 마쳐도 총 7-8년의 과정으로 일본의 학제에 비하면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를 양성한 이유는 한국 교사의 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일본인 교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식민지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책이었다.

### 2.1.2. 제2차 조선교육령기(1922~1938)

1922년에 반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수업 연한을 일본 본토와 동일하게 하고 한 학교에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상으로만 동일한 학제를 사용할 뿐, 국어(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철저히 구별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였다. 조선인들을 위한 학제는 6년 과정의 보통학교를 두었으나 지방의 형편에 따라서는 5년 또는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이 후 보통학교에 2년 과정의 고등과를 둘 수 있었다. 남학생을 위한 5년 과정의 고등보통학교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입학하기 위하여 보통학교에는 2년 과정의 보습과를 두는 곳도 있었다. 또한 5년 과정의 고등보통학교에서 1년 과정의 남학생을 위한 보습과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보습과 설치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 보습과 설치를 학부형들이 요구해

원산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에서는本月 십팔일 오후 한시부터 제일보통학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금년 사월부터 이곳 제일보통학교 내에 이개년 정도의 보습과를 설치하여 입학난을 구제하기를 당국에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동아일보 1923년 3월 22일 3면 기사

#### 보습과 설치 구성읍내에서

평북구성군에는 보통학교 이외에 다른 교육기관이 없어 보통학교를 졸업한 아동이 학자관계로 상급학교에 입학할 못하고 교육에 굶주리던 바 지난 이십일부부터 구성읍내에 보습과를 설치하였으므로 일반 아동은 대단히 기뻐한다더라 - 동아일보 1926년 5월 30일 5면 기사

위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습과의 설치는 조선총독부의 권고 사항이 아니라 조선인들에 의한 요구를 조선총독부에서 수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학제와 구별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보습과에 대한 요구가 거졌던 이유는 고등보통학교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나 입시난이 치열했기 때문에 입시에 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5년 또는 4년, 3년 과정의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1년 내지 2년의 보습과를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취학율이 치열했던 이유는 3.1운동 이후 조선인들 중에는 식민지 체제에서 일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관직과 부, 신지식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sup>4)</sup>

### 2.1.3. 제3차 조선교육령기(1938~1943)

1938년 3월 소학교 규정에 의해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공립학교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공학하게 하고, 교과서, 교육과정, 교수요목 등에 조선어 외에는 한일 양국인의 것을 동일하게 사용하게 하였다. 6년 과정의 소학교를 마치면 5년 과정의 중학교와 5년 과정의 고등여학교로 진학하였다. 그러나 중등교육에서도 초등교육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공학을 실시하는 학교는 거의 없고 조선인이 다니던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명칭만 바뀌어 중학교, 고등여학교가 되었고, 기존의 일본인이 다니던 중학교, 고등여학교는 일본인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하지만 학생수 관계로 별학을 위한 두 개의 학교를 건설할 수 없는 지방도시에서는 사실 상 공학이 이루어졌다.

### 2.1.4.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

제4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교육도 군부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어 군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다. 학교를 군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켜 학생의 체위향상과 수련, 교련 등 전체주의적, 군사주의적, 국가주의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초등교육 기관인 국민학교는 6년 과정의 초등과와 2년 과정의 고등

4) 김권정(2004) 「동화와 저항의 기억-식민지 조선의 일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p.137

과로 나뉘고, 1년 과정의 특수과를 둘 수 있었다. 중등교육 기관인 중학교는 남학생은 4년 과정의 중학교로 진학하였으며 여학생은 4년 과정인 고등여학교로 진학하였다. 고등여학교는 지역에 따라 2년 과정으로 된 곳도 있었다.

**2.1.5. 조선의 교육과정 비교**

조선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을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2>조선의 교육과정**

시대 교육	제1차 조선교육령기 (1911-1922)	제2차 조선교육령기 (1922-1938)	제3차 조선교육령기 (1938-1943)	제4차 조선교육령기 (1943-1945)
초등교육	보통학교(4년)	보통학교(6년,5년,4년)	심상소학교 (6년, 4년)	국민학교 초등과(6년)
중등교육	고등보통학교 (4년, 3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보통학교 보습과(2년) 보통학교 고등과(2년) 고등보통학교(5년) 고등보통학교 보습과(1년) 여자고등보통학교 (5년,4년,3년)	고등소학교 (2년, 3년) 중학교(5년) 고등여학교(5년)	국민학교 고등과(2년) 중학교(4년) 고등여학교(4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중등교육에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고등여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에도 보습과와 고등과 등과 같이 보통학교와 국민학교에 연계되는 복수의 교육과정이 존재한 이유는 보통교육 이후의 중등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했으며, 수업연한도 지방에서는 실정에 맞게 단축할 수 있었다.

**2.2. 대만의 중등 학제**

일제강점기 대만에는 일본인인 내지인과 한족계 대만인인 본도인, 고사족인 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한족계 대만인인 본도인의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2.1. 국어전습소 시대(1895~1898)

일제강점 초기에는 지금과 같은 학제가 아닌 통역훈련을 목표로 하는 국어전습소와 사범학교의 전신인 국어학교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당시에는 식민지 정책을 실시해 가기 위한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만통치를 시작하고 20년간 대만인 자녀에 대한 중등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국어학교에 설치한 국어부와 부속여학교가 있을 뿐이었다. 대만은 1896년 3월 총독부 직할 학교관제를 실시하여 관비로 운영되는 국어학교(부속학교를 포함) 및 국어전습소(1897년 이후 공학교 속성과에 편입, 그 후 폐지)를 개설하였다. 당시 대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어학교인 ‘국어과’는 대만인 자녀를 위한 중등교육의 시작이었다. 여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1898년 국어학교 제1부속학교의 일부가 8월에 독립하여 수업연한 3년의 국어학교 제3부속여학교가 된다. 이후 1906년 4월 ‘국어부’ 제2부속학교 기예과(13세이상 25세이하)가 생기고 1910년에는 국어학교 부속여학교로 이름이 바뀐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의 교육수준은 대만인 남자 중등교육에 비해 낮고, 일본인 여자 중등교육 수준과 비교해도 훨씬 낮았다. 그러나 이 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공학교 교사가 되어 각각 지역사회의 지도적 존재가 되었다.

### 2.2.2. 대만공학교령기와 제1차 대만교육령기(1898~1922)

1902년 7월 ‘국어과’는 ‘국어부’로 개칭되었다. 국어부는 수업연한 3년으로 영어와 정치경제를 제외한 교과목은 오늘날의 중학교와 동일하였다. 하지만 수업수준은 당시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 보다는 낮았다. 1905년 수업연한이 1년 연장되어 4년제가 되고 24년간 ‘국어부’가 계속되었다. 한편 1910년까지 대만에 체류중인 일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는 세워졌지만, 대만인을 위한 초등수료 후의 교육시설로는 국어학교, 의학교 외 농사시험장과 같은 기술원 양성기관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대만유학생의 수는 해마다 늘어갔다. 이처럼 유학생이 증대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대만인 안에 중등교육을 요구하는 세력이 늘고 있다는 것이며, 더 이상 이러한 지지기반을 무시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그 중 1913년 중부지방에 사는 대만인 대지주 임헌당(林獻堂)을 중심으로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설립이 요구되었다. 총독부는 당시 밖으로는 ‘신해혁명’, 안으로는 ‘원주민 정복전쟁’이라는 ‘내외외환’을 겪고

있어 원주민 정복전쟁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대만인 유력자의 교육요구에 타협하여 공립타이중(臺中)중학교 설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1915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공학교 4년을 수료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수업연한이 4년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일본 본토의 중학교와 비교해 분명히 수준이 낮았다. 1919년에 제정된 제1차 대만교육령(칙령 제1호)에 의해 일부 수정을 받고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은 6년제 공학교에서 4년제 고등보통학교(공립 타이중 중학교의 후신)로 이어졌다. 여학생을 위한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이였다. 하지만 이 또한 수업연한이 일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보다 1년 짧고, 중학교에서는 필수인 영어를 수의과로 하는 등, 일본 본토의 중학교와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대만 내에 공학교에서 고등보통학교에 이르는 중등교육의 단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2.3. 제2차 대만교육령기(1922~1941)

1922년 대만교육령 개정에 의해 초등교육은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와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 따라 소학교와 공학교의 구별이 있었다. 중등교육 이상은 원칙적으로는 일본의 학제를 바탕으로 하고, 일본인과 대만인의 ‘종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학을 실시하였지만 그것은 일부 대만인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중등교육 이상에서 공학을 실시한 이유는 내지연장주의의 채택이라는 통치정책의 전환도 있지만, 현실적인 대응으로 대만인의 유학억제책의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고등보통교육을 희망하는 대만인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일본에 유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로 인해 대만인 대상 교육제도의 정비를 불가피하게 진행하였고 유학억제책의 일환으로 공학제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본토의 추밀원에 의해 제1차 대만교육령의 제정과정에서 일본 본토로의 유학생의 증대와 이에 따른 ‘위협사상’의 만연이 문제시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대만 내에서 부모형제 밑에서 관헌의 감독아래 적당한 교육을 받고, 능력 향학의 정신을 선도하여 선량한 인민을 배출해야한다’라는 논의가 제기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공학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중학교 입학난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초등교육 기관에서는 보습수업 등의 준비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 이유는 중학교 입시 문제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대만인 입학자는 일본인에 비해 확률적으로 적은 수였다. 제도상으로는 평등을 실현하는 의미이지

만, 대만인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수업 연한 6년의 공학교는 수업연한 2년의 고등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으며 보습과의 수업 연한 및 입학자격은 대만총독부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의 본토 유학이 줄지 않자, 1930년대 후반 이후 각 주에는 중학교가 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1922년 조선교육령과 동시에 반포된 대만교육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등보통교육인 중학교, 고등여학교 모두 일본인과 공학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제뿐만 아니라 교과서도 1937년부터 중등 이상의 교과서는 완전히 일본과 동일한 문부성 지정도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2.2.4. 제3차 대만교육령기(1941~1945)

대만교육령은 다시 개정되어 소학교 105교, 공학교 820교는 모두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지금까지와 달리 이번 개정은 초등교육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것으로 그 목적은 황국의 도에 속한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적 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로 인해 수업연한이 6년인 초등과와 지금의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수업연한 2년의 고등과로 총 8년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시특례에 의해 고등과 2년의 의무화는 실시되지 않다가 1943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교육제도 개혁은 조선의 것과 동일한 것이었지만 조선에서는 초등교육의 의무화는 실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일본 본토에서도 1900년의 소학교령 이후 심상소학교 과정<sup>5)</sup>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지만, 그 후 중등교육 과정인 국민학교 고등과 2년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941년 개정 이후, 1930년대에는 8.5%였던 일본어 이해율은 57.0%로 증가하고, 1944년에는 71%에 달하였다.

#### 2.2.5. 대만의 학제 비교

한족계 대만인을 위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을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3>와 같다.

5) 1900년 제3차 소학교령 심상소학교 4년, 1907년 소학교령 일부개정 심상소학교 6년, 1941년 국민학교령 국민학교 초등과 6년

<표3> 대만의 교육과정

시대 교육	국어전습소 시대 (1895-1898)	제1차 대만교육령기 (1898-1919)	제2차 대만교육령기 (1922-1929)	대만교육령 개정 (1929)	대만교육령 개정 (194)
초등교육	국어전습소	공학교(6년)	공학교(6년)	심상소학교, 공학교(6년) 공학	국민학교 (초등과)(6년)
중등교육	국어학교 국어학교 부속 여학교(3년)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 학교(3년)	공학교 고등과(2년) 공학교 보습과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 학교(4년)	고등소학교 공학교 고등과 중학교(5년), 고등여학교 (4년)	국민학교 (고등과)(2년) 중학교(5년) 고등여학교 (4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만에서도 공학교와 국민학교에 고등과를 설치하거나 공학교에 보습과를 두어 입학난에 대비한 정황을 볼 수 있다.

### 3. 중등교육용 일본어 교육에 관한 비교 고찰

식민지 일본어 교육정책에 관한 비교 고찰을 위해 조선교육령과 대만교육령에 발표된 각 중등학교 규정을 중심으로 일본어 교육정책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조선의 중등교육용 일본어 교육

보통학교 규칙에 명시된 초등교육용 일본어 교육에는 문자, 읽기, 해석, 회화, 암송, 받아쓰기, 작문 및 습자에 이르기까지 일본어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수법과 지시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에 비해 중등교육용 일본어 교육에는 자세한 사항이 생략되어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1. 제1차 조선교육령기

가. 고등보통학교 규칙(1911년 10월 20일 부령 제101호)<sup>6)</sup>

제10조 3항- 국어는 국민정신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지식, 기능을 획득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교과목에서나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국어는 보통의 언어, 문장을 이해하고 정확하고도 자유롭게 사상을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지덕의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국어는 현대의 문장에서 점차 근고(近古)의 국문을 다루고 읽기, 해석을 가르치며 하이쿠(俳句), 격언, 운문(韻文)등을 암송하도록 하고 회화, 받아쓰기, 작문, 문법을 가르쳐야 한다.

나.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1911년 10월 20일 부령 제102호)<sup>7)</sup>

제9조 2항- 고등보통학교 규칙 제10조 3항과 동일

제12조 국어는 보통의 언어, 문장을 이해하고 정확하고도 자유롭게 사상을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지덕의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국어는 현대의 문장을 주로해서 읽기, 해석을 가르치고, 회화, 받아쓰기, 작문도 교수해야 한다.

위의 고등보통학교 규칙과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 연한 뿐만 아니라 일본어교육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자에게는 현대의 문장에서 점차 근고의 국문을 다루고 읽기, 해석을 가르치게 하였고, 하이쿠, 격언, 운문 등을 암송하게 하는 등 일본어 교육의 수준이 여자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3.1.2. 제2차 조선교육령기

가. 고등보통학교 규정(1922년 2월 20일 부령 제16호)<sup>8)</sup>

제10조 국어는 보통의 언어, 문장을 이해하고, 정확하면서도 자유롭게 사상을 표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문학상의 취미를 기르고 지덕의 계발(啓發)에 기여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6) 이해영(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p.374

7) 전계서 6 p.381

8) 전계서 6 p.412

국어는 현재의 국문을 주로 하여 강독시키며, 나아가서는 평이한 근고문(近古文)을 다루도록 한다. 또한 평이한 한문을 강독하고 간이하면서도 실용에 적절한 국문 작성을 통해서 국어문법의 대요 및 습자를 가르쳐야 한다.

나.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1922년 2월 17일 부령 제14호)<sup>9)</sup>

제10조- 고등보통학교 규칙 제10조와 동일

제2차 조선교육령기의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에 나타난 일본어 교육에 관한 지침은 두 학교가 동일하다. 이는 동일한 5년의 수업연한과 함께 일본어 교육의 방침도 평등하게 실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보통의 언어, 문장, 평이한 근고문 등으로 전체적으로 학습의 수준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 3.1.3. 제3차 조선교육령기

가. 중학교 규정(1938년 3월 15일 부령 제25호)<sup>10)</sup>

제11조 7항-국어의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응용을 자유자재로 하여 국어교육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황국신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14조- 국어는 국어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우리 국민성의 특질과 국민문화의 유래를 분명히 하여 국민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국어는 국어의 구조와 특질을 배우고 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상, 체험에 대한 명확하고도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그리고 국어가 국민성의 구현으로서 국어에 대한 교양이 국민의 자각을 촉진하며 품위를 높이는 요소라는 점을 이해시켜서 국어를 애호하는 정신을 배양하며 미적, 도덕적인 정조를 도야하는데 힘쓰도록 한다.

나. 고등여학교 규정(1938년 3월 15일 부령 제26호)<sup>11)</sup>

제12조 7항-중학교 규정 제11조 7항과 동일

제16조- 중학교 규정 제14조와 전반부 동일

국어는 강독, 작문, 문법 및 습자를 부과해야 하며, 또한 평이한 한문을 추가하여 가르칠 수 있다.

9) 전계서 6 p.421

10) 전계서 6 p.470

11) 전계서 6 p.483

국어를 가르칠 때는 읽기 및 해석의 경우 어구, 문장과 사상, 내용을 하나로 다루며, 말하기의 경우 방언 및 속어를 교정하여 순정명석(醇正明晰:올바르고 개념의 정의가 명확한 것)한 국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작문 및 습자의 경우 실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유의한다.

이와 같이 중학교 규정에는 일본어의 정확한 이해와 응용을 자유자재로 한 철저한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여학교에 규정에는 중학교 규정에 더해 방언 및 속어를 교정하여 순정명석한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3.1.4. 제4차 조선교육령기

가. 중학교 규정(1943년 3월 27일 부령 제58호)<sup>12)</sup>

제1조 8항- 국어의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응용을 자유자재로 하여 순정한 국어생활에 투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 국민과는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국내외의 역사 및 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며, 국체의 본래적 의의를 천명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도록 해서 실천에 배양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국민과는 이를 나누어서 수신, 국어, 역사 및 지리 과목으로 한다.

나. 고등여학교 규정(1943년 3월 27일 부령 제59호)<sup>13)</sup>

제1조 8항- 전술한 중학교 규정과 동일

제3조- 국민과는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국내외의 역사 및 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며, 국체의 본래적 의의를 천명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도록 해서 부덕(婦德)의 계발(啓發) 배양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국민과는 이를 나누어서 수신, 국어, 역사 및 지리 과목으로 한다.

이와 같이 중학교 규정과 고등여학교 규정의 차이는 고등여학교 규정에는 부덕의 계발(啓發) 배양을 요지로 하고 있는 점이다.

유봉호(2010)에 의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등학교의 교육목적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일본어의 숙달’, ‘국민으로서의 성격 함양’, ‘충량한 황국신민’,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등으로써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동

12) 전계서 6 p.540

13) 전계서 6 p.549

화교육 목표가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음<sup>14)</sup>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인해 일제는 총량한 황국신민을 기를 수 있고, 이를 시세와 민도에 맞는, 즉 식민지배국으로서의 조선과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조선인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적 효용성에 닿는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조선인을 기르는데 필요한 일본어, 생활교육내용, 필수과목으로서의 직업과, 간이한 내용 수준 등은 당시 교육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교육목표가 일본의 입장에서 총량한 황국신민의 양성이었다면 이 내용은 일본인이 아닌,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조선인에게 적합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교과내 내용이 전반적으로 저급하고, 생활교육에 치중된 것은 교과를 교과답게 배워 비판적 사고나 문제해결력이 길러지는 것을 일본으로서는 원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 3.2. 대만의 중등교육용 일본어 교육

대만총독부는 1919년에 제1차 대만교육령을 반포하고, 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대만공립고등보통학교 관제를 발표한다. 1922년에는 제2차 대만교육령을 반포하고 대만공립학교 관제를 발표한다. 하지만 이 관제에는 학제 구성과 학교 구성 등에 관한 사항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조선과 같이 규칙이나 규정의 형태로 각 과목의 상세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1941년 제3차 대만교육령 당시에는 일본 본토의 교육령을 그대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은 일본 본토와 같으며 여기에도 일본어 교육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법령 아래에 종속하는 규칙이나 규정이 조선에서 반드시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획일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입증해준다. 이에 비해 대만에서는 일찍이 공학을 통하여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는 일본인 자녀와 동일하게 교육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14) 유봉호(2010)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기의 중등교육」 『한국교육사학』 16, p.87

15) 김정자 외(2005)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좌절 - 일제강점기 초등교육-』 교육과학사 pp.105-106

## 4. 결론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의 교육목적과 식민 교육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과 대만의 중등교육 학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조선과 대만은 같은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중등교육 학제와 일본어 교육의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보다 15년 앞서 일제치하에 들어간 대만은 초반에는 학교다운 면모보다는 일본어 교습소의 역할이 컸으며 특히 중등교육의 체계가 시작된 것도 일제강점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1915년이었던 점은 일본이 대만에서 행한 교육이 철저하게 본토와는 구별되는 식민지 억제교육이었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조선은 개화기때부터 이어진 통감정치로 인해 강제 병합된 이후 학교가 정비되고 중등교육이 실시되기까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조선에서는 개인의 학습 역량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수업연한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고 중등교육도 보통학교 이후의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통점으로는 조선과 대만에서 모두 중등교육을 향한 열망이 강한 것에 비해 입학난이 심각하여 보습과와 고등과가 활성화되었으며, 대만에서는 유학억제책의 하나로 조선에 비해 공학제가 먼저 실시된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제의 개편 모두가 중등교육을 억제하려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교육의 당위적인 역할인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일, 창의성을 발휘케 하는 일, 한국의 민족적 이상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 또한 학문자체의 가치 있는 내용을 교수하는 일 등을 외면한 일본 식민지 정책에 부합된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다.<sup>16)</sup>

한편, 일본어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조선에서는 조선교육령이 반포될 때마다 각 학교 규칙과 규정을 정하여 일본어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대만에서는 제2차 대만교육령 이후부터 일본인과 공학을 인정하고 1937년부터는 교과서도 통일하였기 때문에 자치적인 일본어 교육을 실시했던 조선에 비해 그들이 추구하는 식민지 언어정책을 펼쳐 나가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6) 전게서 14 p.89

그 결과 1941년 일본어 보급률이 조선에서는 17.6%에 머물고 있는 것에 반해 대만에서는 57%를 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4년에는 71%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만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이른 학제의 통일로 인한 ‘동화’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자유로운 학제 선택과 일본어 교육을 허용한 조선에 비해 일률적인 학제 통일과 일본어 교육을 감행한 대만에서 그들의 민족말살 식민정책의 본질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후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만에서의 학제를 바탕으로 보습과, 고등과 등에서 실제 사용된 중등교육용 일본어 교과서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같은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실업교육과 사범교육에 관하여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명숙(2010)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pp.7-34
- 김권정(2004) 「동화와 저항의 기억-식민지 조선의 일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123-159
- 김경자, 김민경, 김인진, 이경진(2005)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좌절 - 일제강점기 초등교육-』 교육과학사 pp.105-106
- 백순근(2003) 『일제강점기의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p.25
- 유봉호(2010)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기의 중등교육」 『한국교육사학』 16, 한국교육사학회, pp.63-98
- 윤중혁(2008)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제변천 과정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총서 01, p.24
- 이혜영(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pp.374-550
- 藤井康子(2011) 「第二次台湾教育令期における中学校設置問題：中学校の支持基盤に着目して」 『京都大学大学院教育研究科紀要』 57, 京都大学大学院教育研究科, pp.365-377
- 杉森知也(2012) 「植民地台湾における中等教員の需給調整-外国及外地派遣教育職員制度を中心に」 『研究紀要』 83, 日本大学文理学部, pp.47-65
- 弘谷多喜夫;廣川淑子(1973) 「日本統治下の台湾・朝鮮における植民地教育政策の比較的研究」 『北海道大学教育学部紀要』 22, 北海道大学教育学部, pp.19-92

논문 투고 일자 : 2018.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8. 07.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8. 03.
--

---

 <要旨>
 

---

## 日本統治期の朝鮮と台湾における中等教育学制と国語教育に関する研究

宋淑正

本稿は、日本統治下における朝鮮総督府と台湾総督府の教育目的と植民教育の本質を把握するために、朝鮮と台湾の中等教育学制を比較した。その結果、朝鮮と台湾は同じ日本統治下にあったにも拘らず、教育の面では相当の差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朝鮮より15年先立って日本統治下に入った台湾では、中等教育の体系が整ったのも日本統治が始まってから20年が過ぎた1915年の出来事である。朝鮮では中等教育のための入学難が著しく、補習科が活性化されたのに対し、台湾では留学抑制策のため日本人との共学が朝鮮に比べて先に実施された事が分かる。

一方、国語教育においては、台湾では第2次台湾教育令以後、日本人との共学を認め、1937年からは教科書も統一したため、自治的な国語教育を実施した朝鮮に比べて、朝鮮総督府が追求する植民地言語政策を広げて行く事が容易だった。

その結果、1941年の国語普及率が朝鮮では17.6%に留まっているのに、台湾では57%を越え、ついに1944年にはとうとう71%まで達した。このことから、台湾での国語教育は学制の統一に伴う「同化」政策によって大きな効果をもたらすようになったと解釈できる。

 The secondary education system and Japanese language education in  
 Korea and Taiwan during Japanese rule

Song, Sook-Jeong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secondary education systems in Korea and Taiwan to grasp the educational purpose and the essence of colonial education prescribed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and the governor-general of Taiwan while those countries were under Japanese rule. We found that despite the fact that Korea and Taiwan were under Japanese rule at the same time, there we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erms of education. In Taiwan, which came under Japanese rule more than fifteen years earlier than Korea, the system of secondary education was settled in 1915, more than twenty years after the beginning of Japanese rule. In Korea, entrance difficulties for secondary education were intense and refinement departments were activated, whereas in Taiwan, it was found that co-education with Japanese was carried out earlier than in Korea because of measures to control studying abroad.

In the case of bilingual education, in Taiwan, after the Second Taiwanese Education Ordinance, cooperative learning with Japanese people has been permitted and textbooks have been unified since 1937. Compared with Korea, which implemented autonomous language education, it was easy to expand the colonial language policy pursued by the general government.

As a result, although the Korean penetration rate of the national language remained at 17.6% in 1941, it exceeded 57% in Taiwan, finally reaching 71% in 1944.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Japanese language education in Taiwan was a major effect of the "assimilation" policy accompanying the unification of the school system.